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창살 그래픽 예제 비교 연구

- 기하학적 관점에서 그리드 형태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Graphic Examples of Traditional Lattices in Korea, China, and Japan

- Focused on grid type from geometrical viewpoint -

박지연* / Park, Jee-Yeon

이연숙** / Lee, Yeun-Sook

Abstract

The cultural identity of design is very critical in the modern society which is called the society of complex culture and multi-culture. In addition, adopting a traditional lattice-like pattern as a composition element of interior space is an effective way in the context of adding a traditional touch to the modern interior space. Meanwhile, in the process of applying Korean traditional lattices to modern interior space, some problems occurred: it has not been properly embodied; or it has been mistaken for those of China and Japan sharing similar culture with Korea.

Thus, this study is designed to have precise knowledge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traditional lattices. Besides, typical patterns of each nation's lattices are comparatively analyzed from the geometrical viewpoint, in a bid to pave the way for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lattices. In particular, standards are set and proposed to identify different nation's lattices, mainly focusing on grid type lattices which are often used and confusing.

키워드 : 창살, 복합문화, 다국적 문화, 전통 디자인의 현대화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복합 문화, 다국적 문화로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 디자인의 문화적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실내 구성 요소로서 전통 창살의 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현대 실내 공간의 정체성 부여라는 맥락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 창살을 현대 실내 공간에 적용함에 있어서, 전통 창살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같은 문화권에 있는 중국 및 일본의 창살과 혼돈하여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실내 공간 전통 디자인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전통 창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전통 창살의 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국 창살의 대표적 형태들을 기하학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자주 사용되면서

도 혼돈의 여지가 있는 그리드 형태를 대상으로, 국가별 변별력을 지원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전통 창살의 형태적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대표적인 형태들을 파악한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 전통 창살의 형태적 특성을 기하학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특히 그리드(grid)형)에 대해 각 국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성과 유사성을 규명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각 나라 전통 창살의 형태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위를 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분류체계 및 이에 따른 대표적인 형태를 선정하였다. 각 나라의 전통 창살 예제는 문헌에 게재된 그래픽 예제들로 제한하였는데, 한국 전통 창살의 경우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 감사,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 D.

1) 그리드(grid)형이란 창살 문양이 격자 형태로서, 전체 틀의 양끝을 연결하는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하여 형성된 각 칸의 크기 및 비율이 일정한 형태를 의미한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형태를 그대로 옮겨 도식화한 것으로 보이는 형태들로 제한하였다. 중국 전통 창살은 “A Grammar of Chinese Lattice”²⁾에서 제시하는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본 전통 창살은 일본의 창살인 쇼지³⁾가 한국이나 중국보다 적극적인 실내 공간 구성 요소로서 오래 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통에 대한 시간적 범위의 제한이 모호한 점을 감안하여 구성방식에 제한점을 두는 것으로 오류의 폭을 좁힌다. 즉, 유리나 직물 및 기타 패넬을 함께 사용한 예제들은 제외하고 전면이 순수한 쇼지만으로 구성된 예제들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각 나라의 전통 창살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대표적 형태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분류체계 및 대표적 형태를 근거로 하되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분류체계를 도입하거나 독창적으로 세우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나라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들을 기하학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는 방법은 본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빈도 수 및 분포를 나타내는 표와 그래프를 개발하였다.

2. 전통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2.1. 한국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1) 분류체계

한국 전통 창살은 창살의 모양새에 따라 쓰임새를 달리 하였고 각각에 붙여진 이름이 있으므로 형태별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의 분류체계를 보면, 창호만을 다룬 문헌의 “살의 모양에 따른 분류”⁴⁾, 창살을 문양의 측면에서 본 “창살무늬”⁵⁾, 건축의 입장에서 창살을 창호의 종류를 통해서 본 “창과 호로 혼용되는 것”⁶⁾ 등이 있는데 각각에는 다음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하나의 형태가 하나의 범주에 들지 않고 분류 기준이 모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명칭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 분류의 명칭이 ~살, ~창, ~문 등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류 기준이 언급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창호를 호, 창, 창과 호의 혼용, 복합적인 경우 등으로 분류한 다음, 창과 호로 혼용되는 것을 분류할 때 창살의 형태가 언급된 경우였다. 이는 같은 모양의 살인 경우 창과 호의 구분 때문에 다른 이름이 붙게 되는 오류를 방지해 주는 장점이 있으며 변형, 특히 복합적 사용에 의한 변형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용어에 있어서 창과 살이 혼용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2) Dye, Daniel Sheets. A Grammar of Chinese Lat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3) 일본의 창살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미 ‘쇼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 고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 영문 문헌에서 “shoji”, “lattice”로 표현된 것들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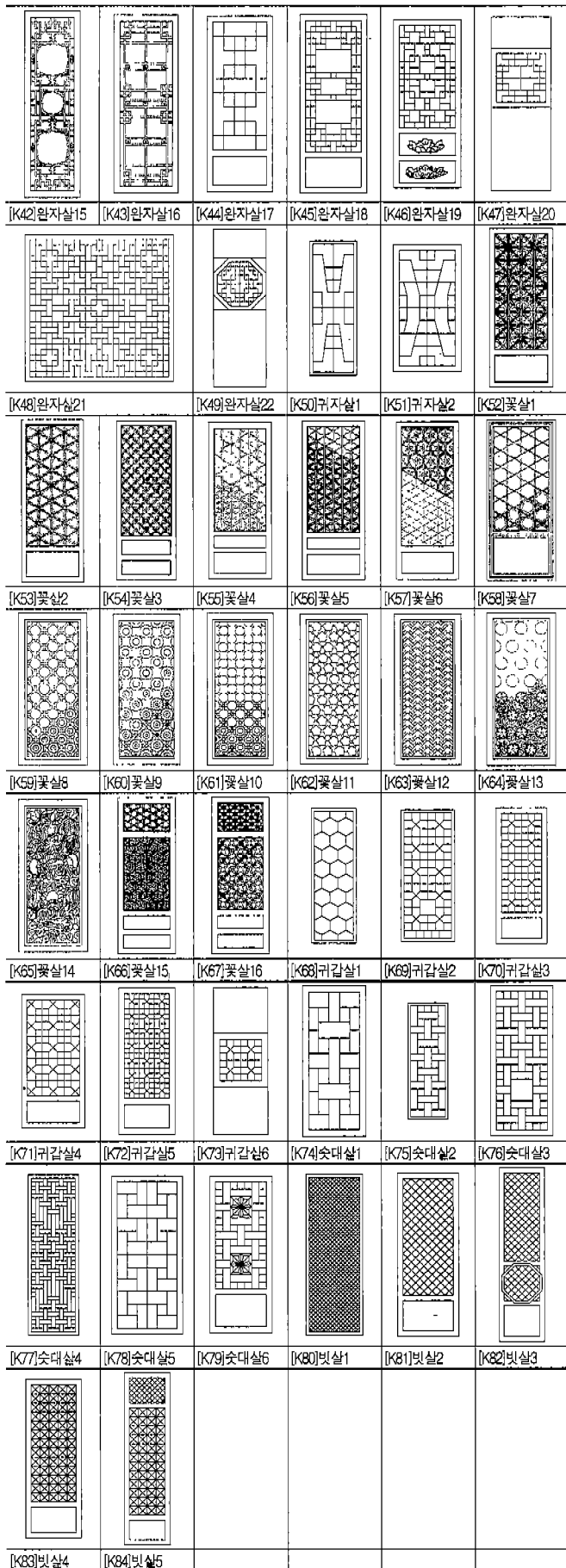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I 창호 보성각. 1996, p.12

5) 임영주. 전통문양 자료집. 미진사. 1996, p.59

6)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97, pp.83-106

<표 1> 한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

[K1]띠살1	[K2]띠살2	[K3]띠살3	[K4]띠살4	[K5]띠살5	[K6]띠살6
[K7]띠살7	[K8]정자살1	[K9]정자살2	[K10]정자살3	[K11]정자살4	[K12]정자살5
[K13]용자살1	[K14]용자살2	[K15]용자살3	[K16]용자살4	[K17]용자살5	[K18]아자살1
[K19]아자살2	[K20]아자살3	[K21]아자살4	[K22]아자살5	[K23]아자살6	[K24]아자살7
[K25]아자살8	[K26]아자살9	[K27]아자살10	[K28]완자살1	[K29]완자살2	[K30]완자살3
[K31]완자살4	[K32]완자살5	[K33]완자살6	[K34]완자살7	[K35]완자살8	[K36]완자살9
[K37]완자살10	[K38]완자살11	[K39]완자살12	[K40]완자살13	[K41]완자살14	



• 한국 창살 그림 출처 : 정기인(1996), 주남철(1997), 천병욱(1998)에서 스캐닝 후 포토샵으로 선을 재정리함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비교 분석이라는 연구목적에 근거를 둔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들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첫째, 창살의 형태에 따른 명칭이 아닌 것과 상호지를 붙이지 않고 창으로만 사용되는 살창은 다른 국가, 특히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하는 본 연구에서는 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띠살은 여러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기본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사용빈도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 1범주로 한다. 셋째, 한자의 형태에 기인하는 형태들; 즉 정(井)자살, 용(用)자살, 아(亞)자살, 완(卍)자살, 귀(貴)자살 등은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 넷째, 자연의 형태를 본 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형태들, 즉 꽃살, 귀갑살, 숫대살 등은 하나의 범주로 묶는다. 이때 꽃살은 주로 빗살과 소슬빗살과 함께 사용되므로 이러한 형태도 꽃살에 포함시키되 빗살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른 범주로 구분한다. 숫대살은 아자살의 간소한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가지의 모양으로 보는 견해를 채택한다. 다섯째, 빗살의 경우, 정자살의 변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한자형으로 볼 수는 없으며, 45도의 빗살과 10도와 150도의 소슬빗살이 있으나 소슬빗살은 꽃살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45도 빗살만을 하나의 분류로 본다. 이 빗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선 구성이므로 이를 사선형 범주에 둔다. 이상의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 다음의 분류체계가 구성된다.

I. 기본형

1. 띠살

II. 한자형

- 2. 정(井)자살 3. 용(用)자살 4. 아(亞)자살
- 5. 완(卍)자살 6. 귀(貴)자살

III. 자연형

- 7. 꽃살 8. 귀갑살 9. 숫대살

IV. 사선형

10. 빗살

(2) 대표적 형태

한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는 이상에서 구성된 분류체계를 기본 틀로 하여 각각의 범주에서 하나 이상의 예제를 선택해 다양한 변형을 갖는 것은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임의로 다수 선정할 수 있다. 선정된 예제들은 전통 창살의 형태를 도식화한 문헌들에서 재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원래의 형태를 임의로 변형시킨 것으로 보이는 예제들은 가능한 한 제외시킨다.

이상의 기준에 의해 <표 1>과 같은 총 84개의 예제들이 선정되었는데, 이를 한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로 보기로 한다.

2.2. 중국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1) 분류체계

중국 전통 창살의 분류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중국 창살의 형태적 문법을 만들기 위해 대표적인 형태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문헌의 내용을 채택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식물학이나 동물학처럼 창살을 생태계 수형도와 같이 가치를 치는 형식을 취한다.

다음은 중국 전통 창살의 분류체계이다.

<표 2> 중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

I. 영역 분할/FIELD DIVISION

1. 전면/Allover

- A.평행사변형/Parallelogram B.팔각형/Octagon
- C.육각형/Hexagon

2. 구조/Frame

- D.1-초점형/One Focus E.2-초점형/Two Foci
- F.3-초점형/Three Foci G.5-초점형/Five Foci
- H.무초점형/No Foci

II. 맞물림 방식/LOCKING SYSTEM

3. 관절형/KNUCKLE

- I.쐐기형/Wedge-Lock J.표출형/Presentation

4. 교차형/INTERLOCK

- K.외부결속형/Out-Lock L.내외부결속형/In-Out Bond
- M.한대(漢代)선형/Han Line

III. 선의 흐름/LINE FLOW

5. 파도형/WAVE

- N.병렬식파도형/ParallelWave O.대칭식파도형/OpposedWave
- P.역방향파도형/RecurvateWave Q.연결식고리형/LoopedContinue

6. 만(卍)자형/SWASTIKA

- R.만자 유형/Like Swastika S.만자 변형/Unlike Swastika

IV. 선의 마무리

7. "Ju I" 문자형

- T."Ju I" 중심형 U."Ju I" 전면형

8. 소용돌이형/THUNDER SCROLL

- V.S자 소용돌이형/S-scroll W.U자 소용돌이/U-scroll

9. 빙선(氷線)형/ICE RAY

- X.빙선비대칭형/Rustic ice-ray Y.빙선대칭형/Symmetry ice-ray

10. 원형-정사각형/CIRCLE-AND-SQUARE

- Z.정사각형-곡선형/Square-round

(2) 대표적 형태

중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는, 앞에서 언급된 분류체계에 의해 알파벳 순서대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 각 범주의 대표적인 형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선택된 것들이다. <표 2>는 중국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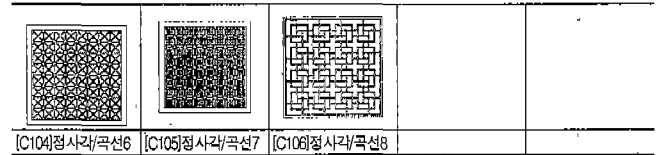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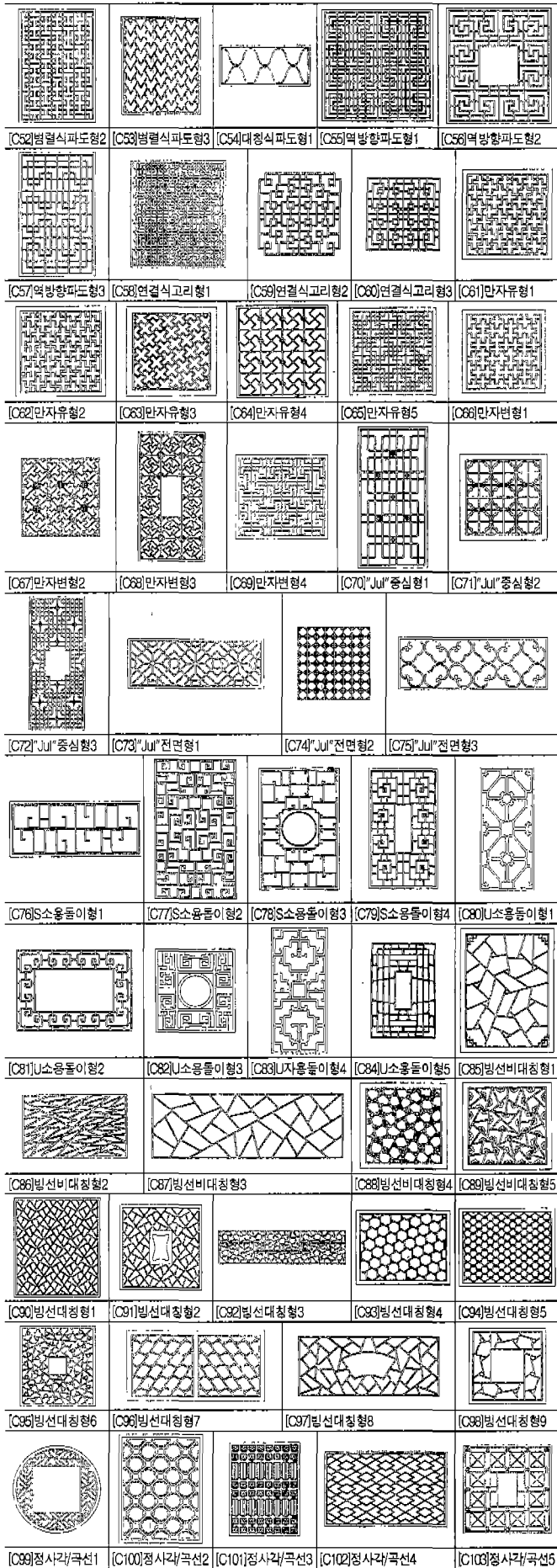
[C1]평행사변형1	[C2]팔각형1	[C3]육각형2	[C4]팔각형3	[C6]육각형2	[C5]육각형1
[C7]육각형3	[C8]육각형4	[C9]육각형5	[C10]1-초점형1	[C12]1-초점형3	
[C11]1-초점형2	[C13]1-초점형4	[C14]1-초점형5	[C15]1-초점형6	[C16]1-초점형7	
[C17]1-초점형8	[C18]2-초점형1	[C19]3-초점형1	[C20]3-초점형2		
[C21]3-초점형3	[C22]3-초점형4	[C23]5-초점형1	[C24]5-초점형2	[C25]무초점형1	
[C26]무초점형2	[C27]무초점형3	[C28]무초점형4	[C29]무초점형5	[C30]무초점형6	
[C31]쐐기형1	[C32]쐐기형2	[C33]쐐기형2	[C34]쐐기형3		
[C35]쐐기형5	[C36]쐐기형6	[C37]쐐기형7	[C38]쐐기형8		
[C39]표출형1	[C40]표출형2	[C41]외부결속형1	[C42]외부결속형2	[C43]외부결속형3	
[C44]내외부결속형4	[C45]내외부결속형1	[C46]내외부결속형2	[C47]내외부결속형3		
[C48]한대선형1	[C49]한대선형2	[C50]한대선형3	[C51]병렬식파도형1		

2.3. 일본 창살의 분류체계와 대표적 형태

(1) 분류체계

일본 전통 창살은 주로 쇼지 스크린의 구성 형식에 의해 분류되는데, "창살 패턴(Lattice Patterns)"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⁷⁾과 그래픽 자료를 주로 다룬 문헌의 분류 방법⁸⁾,

7)Arsdale. SHOJI.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8, pp.70-71
 8)Goodman. The Japanese Home Stylebook. Stone Bridge Press. 1992, pp.85-90



* 중국 창살 그림 출처 : Dye(1949)에서 스캐닝 함

그리고 “반투명종이패널(Translucent paper panel)”로서 쇼지를 분류하는 방법을 볼 수 있다. 앞의 두 분류체계는 쇼지의 구성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쇼지 내부의 패턴은 분류되지 않고 있다. 다른 하나는 “쇼지의 전형적 형태”라는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분류인데, 쇼지의 구성 방식이 아닌 패턴이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본 연구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에 가까우나 쇼지의 형태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도출되어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첫째, 일본 전통 창살인 쇼지는 그 특성상 형태만으로는 전통과 현대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구성 방식에 제한점을 두는 것으로 오류의 폭을 좁힌다. 즉, 유리나 기타 패널을 함께 사용한 것은 제외하고, 전면이 순수한 쇼지만으로 구성된 것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재료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목재와 종이 가 아닌 다른 재료, 예를 들어 대나무나 직물 혹은 유리 따위를 섞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쇼지의 형태상 가장 큰 특징이 기하학에 있으므로 분류체계는 이를 근거로 하여 수직선, 수평선, 사선에 의한 패턴 형성 방식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 셋째, 쇼지는 수직·수평의 격자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형이며, 이러한 형태의 변형이 패턴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직·수평형과 사선이 포함된 것으로 크게 나누되, 대부분이 해당되는 수직·수평형은 일정한 원칙을 찾아서 세분하고, 사선이 섞인 것은 하나로 묶는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분류체계가 구성된다.

I. 수직·수평형

1. 기본형 (그리드형)
2. 수직변형
3. 수평변형
4. 복합변형 (수직변형+수평변형)
5. 기타변형

II. 사선형

6. 사선포함형

(2) 대표적 형태

이상의 분류체계의 각 범주에 해당되는 예제들은, 쇼지의 특성상 비슷해 보이더라도 그 구성 형식이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모두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는 쇼지가 격자형의 여러 변형을 기본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형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블리

<표 3> 일본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

J11 기본형1	J21 기본형2	J31 기본형3	J41 기본형4	J51 기본형5	J61 기본형6
J71 기본형7	J81 기본형8	J91 기본형9	J101 기본형10	J111 기본형11	J121 기본형12
J131 기본형13	J141 기본형14	J151 기본형15	J161 기본형16	J171 기본형17	J181 기본형18
J191 기본형19	J201 수직변형1	J211 수직변형2	J221 수직변형3	J231 수직변형4	J241 수직변형5
J251 수직변형6	J261 수직변형7	J271 수직변형8	J281 수직변형9	J291 수직변형10	J301 수직변형11
J311 수직변형12	J321 수직변형13	J331 수직변형14	J341 수직변형15	J351 수직변형16	J361 수평변형1
J371 수평변형2	J381 수평변형3	J391 수평변형4	J401 수평변형5	J411 수평변형6	J421 수평변형7
J431 수평변형8	J441 수평변형9	J451 수평변형10	J461 수평변형11	J471 수평변형12	J481 수평변형13
J491 수평변형14	J501 수평변형15	J511 수평변형16	J521 수평변형17	J531 수평변형18	J541 수평변형19
J551 수평변형20	J561 수평변형21	J571 복합변형1	J581 복합변형2	J591 복합변형3	J601 복합변형4
J611 복합변형5	J621 복합변형6	J631 복합변형7	J641 복합변형8	J651 복합변형9	J661 기타변형1

J671 기타변형2	J681 기타변형3	J691 기타변형4	J701 기타변형5	J711 기타변형6	J721 기타변형7
J731 기타변형8	J741 기타변형9	J751 기타변형10	J761 기타변형11	J771 기타변형12	J781 기타변형13
J791 사선포함형1	J801 사선포함형2	J811 사선포함형3	J821 사선포함형4	J831 사선포함형5	J841 사선포함형6
J851 사선포함형7					

· 일본 창살 그림 출처 : Goodman(1992)에서 스캐닝 후 포토샵으로 선을 재정리함

류게 되면 그 특성 파악에 잘못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선택된 예제들은 하나의 문헌에서 발췌한 것인데 다른 문헌들을 통하여 보충하고자 하였으나 이 문헌에 없는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 3>은 일본 전통 창살의 대표적 형태들이다.

3. 전통 창살의 사례 특성 비교

3.1. 분류체계의 특성

각 나라별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분류체계의 기준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형태적인 특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각각의 창살에 고유한 이름이 있으며 각각의 기본형을 중심으로 변형이 창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형태의 변형을 넘어서서 다양성을 꾀하는 방법으로는, 하나의 창호를 면 분할하여 분할된 면을 서로 다른 문양으로 구성하는 방법, 또는 하나의 건물에 서로 다른 창살을 지닌 창호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공간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즐겨 사용하는 창살의 문양이 달랐는데, 예를 들어 안채에는 이차살, 사랑채에는 용자살을 사용했다. 이는 창살 문양에 의미성을 부여하고자 한 흔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창살의 상징성 및 의미성은 한국 전통 창살의 고유한 특성이다. 중국의 경우, 창살을 문양의 형태만으로는 분류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문양의 기본 형태, 문양이 반복되는 방식이나 교차되는 방식, 선의 흐름이나 연결방식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분류가 가능해지는 특성이 있다. 즉, 하나의 창살 문양이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에 따라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처럼 가능한 형태적 변형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 실내 공간에서 변화성을 주도하는 강조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일본은 수직선과 수평선에 의해 형성되는 격자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문을 구성할 때 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 이는 다양한 창살의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명확한 분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일본 창살을 전통 사회에서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되게 한다.

이상과 같이 분류체계 성립 과정에서 나타난 각 나라 창살의 형태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요약 및 설명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분류의 기본 요소가 원자와 같은 성질을 갖느냐 분자와 같이 집합(set)의 성격을 갖느냐하는 것이다. 한국은 한 마디로 분자형이다. 그래서 변형을 피하더라도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원자적 요소들의 합성이 아닌, 면 자체를 미리 분할하거나 면 자체가 다른 면에 적용시키는 분자적 요소들의 혼용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은 원자형이어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고 복잡한 형태들을 자유롭게 만들어낸다. 일본도 원자형이지만 원자의 성격은 중국의 그것과 달리 단순하고 간단하다. 두 번째는 기하학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일본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주로 사용하는 직선형이라 한다면, 중국은 곡선형, 사선형, 직선형 등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보이며, 한국은 직선형이 주를 이루고 사선형과 곡선형이 일부 나타난다는 것이다.

3.2. 기하학적 측면에서의 특성

전통 창살 문양의 현대적 적용이라는 연계성을 고려하여,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각각의 창살 문양을 기하학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창살의 문양은 창살이 구성되는 전체 틀 즉, 문틀이나 창틀 등의 형태와 상관없이 단지 틀을 매우고 있는 내부 구성 형태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러한 창살 문양의 기하학적인 특성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 등의 선에 의해 구성되는 2차원적 형태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형태들의 몇 가지 범주로 요약되고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원리 내에서 변화를 주는 형태로서 일본 창살 문양의 기본 원리가 되는 형태이다. 이 범주에 사용되는 선들은 모두 수직선과 수평선이어야 하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전체 틀의 한 쪽 끝에서 다른 한 쪽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선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 내에서 창출되는 변형들은 수직선과 수평선이 교차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칸들의 규모 및 비례 혹은 전체적인 밀도감의 균일성 내지는 다양성에 의해 달라지는 울동감으로 나타난다 하겠다. 이를 “수직·수평형”이라 한다. 두 번째로는 “사각형”으로서 모든 선들이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선들이 틀을 연결하지 않고 끊어지는 것이 생기면서 사각형을 이루는 형태이다. 세 번째는 “육각형”으로서, 문양에 육각형이 나타나는 형태인데, 일률적으로 육각형이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사각형이나 수직·수평선과 함께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네 번

째는 세 번째의 육각형 범주와 비슷한 경우로서 팔각형이 나타나는 형태이며 “팔각형”으로 구분한다. 다섯 번째로는 앞의 사각형이나 육각형 및 팔각형이 아닌 다른 도형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오각형을 비롯한 기타 다각형들, 혹은 소용돌이 모양이나 십자 모양이나 고리 모양 등 폐곡선이 되 직선적으로 구성된 형태들이 있다. 사다리꼴은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기타 다각형”이라 한다. 여섯 번째는 사선의 느낌이 두드러진 형태들로 이는 “사선형”으로 본다. 여기에는 모든 선들이 사선으로만 구성된 것에서부터 사선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느낌이 강한 것까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곡선형”으로서, 곡선이 가미된 것은 모두 이 범주로 본다. 여기에는 원형, 자유곡선, 끝만 둥근 형 등이 포함된다.

<표 4> 기하학적 측면에서 본 한국, 중국, 일본 창살의 대표적 형태

국가 형태	한국	중국	일본
수직·수평형	K1,K2,K3,K4,K5,K6,K8,K13,K14,K15,K16,K17	-	J1,J2,J3,J4,J5,J6,J7,J8,J9,J10,J11,J12,J13,J14,J15,J16,J17,J18,J19,J20,J21,J22,J23,J24,J25,J26,J27,J28,J29,J30,J31,J32,J33,J34,J35,J36,J37,J38,J39,J40,J41,J42,J43,J44,J45,J46,J47,J48,J49,J50,J51,J52,J53,J54,J55,J56,J57,J58,J59,J60,J61,J62,J63,J64,J65
사각형	K18,K19,K20,K21,K22,K23,K24,K28,K29,K30,K31,K32,K33,K34,K35,K36,K37,K38,K47,K76,K77,K78	C1,C11,C15,C23,C24,C26,C27,C28,C29,C32,C33,C34,C37,C40,C41,C43,C44,C45,C46,C47,C106	J66,J67,J68,J69,J70,J71,J72,J73,J74,J75,J76,J77,J78
육각형	K68	C5,C6,C7,C8,C9,C93	-
팔각형	K69	C2,C3,C4	-
기타 다각형	K50,K51,K63	C51,C52,C55,C56,C57,C58,C59,C60,C61,C63,C65,C69,C76,C78,C79,C94,C96	J83,J84,J85
사선형	K80	C10,C11,C12,C13,C16,C42,C53,C86,C87,C88,C90,C92,C102,C104,C105	J79,J80,J81,J82
곡선형	K56,K57,K58,K59,K64,K65	C14,C19,C20,C31,C38,C48,C49,C50,C54,C71,C74,C75,C80,C83,C100,C101	-

창살 문양을 기하학적 측면에서 분류해 보았을 때 이상과 같은 일곱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국가별로 대표적 형태들을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단, 기하학적 분류 기준에 의한 구분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들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제외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수직·수평형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나타난다. 그 중 그리드형의 경우에는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해당되는 형태들을 보면 서로를 구분시켜주는 특징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마도 전체적인 밀도감과 각 칸의 가로 대 세로의 비례가 보이는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부분은 현대적 적용과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 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사각형은 단순히 교차에 의한 형성이 아니라 의도적인 구성이라는 점에서 수직·수평형만큼 단순한 형태는 아니지만 비교적 단순한 편이며 한국, 중국, 일본의 제법 많은 형태들이 속하고 있다. 한국의 사각형은 아자살이나 완자살 그리고 숫대살이 대표적인

사각형에 속하는데, 수직선과 수평선의 끊어진 부분이 연결되면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사각형을 구성하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중국의 사각형은 의도적으로 사각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한국의 경우와 같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밀도에 있어서도 더 조밀하다. 그리고 몇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없을 만큼 같은 사각형의 범주라 하더라도 형태적으로 서로 다른 다양함을 보인다. 반면 일본의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그리드형에 변형을 꾀하여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나 중국과는 확실히 다른 성격을 지닌다. 그리드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살대를 추가하거나 제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일본 사각형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육각형과 팔각형은 한국과 중국에서만 보이는 형태인데, 한국에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은 형태이다. 한국은 육각형이나 팔각형만으로, 혹은 사각형과 함께 큼직한 형태로 비교적 단순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육각형과 팔각형은 전체적인 틀에서부터 내부 문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보다 복잡한 구성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사각형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조밀하다. 기타 다각형과 사선형의 경우, 세 나라가 모두 해당되는 예들을 갖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가 가장 많다. 여기에서 한국은 귀자살과 빗살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두 나라와 다른 차이를 보인다. 곡선형은 한국과 중국에 나타나는 형태인데, 한국의 경우 꽃살을 제외한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문양이 곡선으로 구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꽃살을 만들 때에 곡선형이 나타나므로 진정한 기하학적 차원에서 창살 문양에 다양한 곡선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국에는 이러한 곡선형이 원형을 비롯해서 물결 모양이나 끝만 둥근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3. 그리드형의 특성

한국의 그리드형에는 용자살과 정자살이 있는데, 용자살은 매우 성긴 반면 정자살은 매우 조밀한 특성이 있어서 같은 그리드형이라 하더라도 밀도감은 극단적인 양상을 보인다. 한국의 용자살보다는 조밀하고 정자살보다는 성긴 범위 내에 해당되는 밀도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전체 틀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례를 추구하는 형태로, 일본은 규격화된 틀에 다양한 비례를 추구하는 형태로 그리드형이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를 수치로 간단히 표현해보기 위해서 각 예제들의 세로 칸 수를 "a", 가로 칸 수를 "b"라 할 때, 그 구성을 "(a×b)"로 표현하고 이를 "구성식"이라 하기로 한다. 이 때 실제로 a×b의 값은 전체 칸 수를 의미하게 되므로 그 치수가 클수록 조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성식만 보더라도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각 칸이 정사각형인지 아니면 직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이라면 세로로 긴 형태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칸의 긴 면의 길이를 짧은 면의 길이로 나눈 값을 "비례치"라 하기로 한다. 이 값은 "1"을 기준으로, 클수록 길다란 형태임을 의미하게 되는데, "1"인 정

우는 정사각형을 뜻하는 것이 된다. 단, 긴 면이 가로일 경우에는 수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세로로 긴 형태와 구분되게 한다.

이상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5>이다. 이 표를 보면, 일본 그리드형이 전체적으로 규격화되어 틀의 크기가 일정한 것에 비해 한국 그리드형은 그 크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 그리드형을 소개하는 문헌이 쇼지 스크린의 크기를 임의로 규격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화실의 크기가 바닥의 규격화된 다다미의 수로 정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창호의 규격화는 일본 쇼지의 특성이라 생각된다. 한국은 방의 넓이나 천장 높이를 결정할 때에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었던 5척을 중심으로 하여, 창호의 경우에도 그 기본 구조에서 설치기준을 인체에 두기는 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건물이나 창호의 전체 규모나 비례를 고려하여, 각 그리드 칸의 형태가 일정한 범주의 비례로 형성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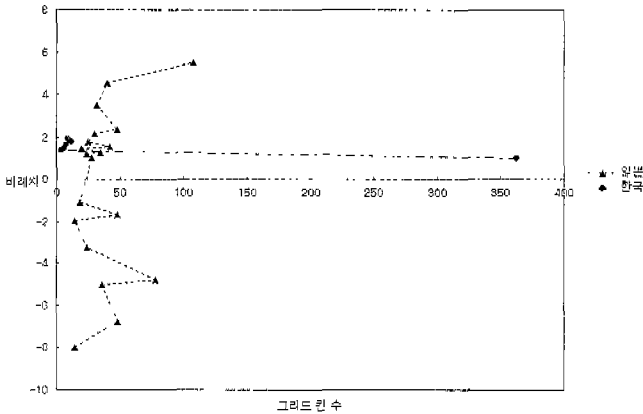
<표 5> 한국과 일본 그리드형의 구성식 및 비례치

구분	형태	그리드형					
		대표형	구성식	비례치	대표형	구성식	비례치
한국	대표형						
	구성식	(2×2)	(3×2)	(3×3)	(4×2)	(4×3)	(33×11)
	비례치	1.39	1.46	1.93	1.64	1.77	1.00
일본	대표형						
	구성식	(4×8)	(4×10)	(5×4)	(5×5)	(5×6)	(6×3)
	비례치	3.50	4.55	1.47	1.80	2.16	-1.10
일본	대표형						
	구성식	(6×8)	(6×18)	(7×2)	(7×4)	(7×5)	(7×6)
	비례치	2.37	5.50	-1.96	1.04	1.28	1.54
일본	대표형						
	구성식	(12×4)	(14×1)	(18×2)	(24×2)	(26×3)	
	비례치	-1.67	-8.00	-5.00	-6.75	-4.76	

* 구성식, (a×b) : a=세로 칸 수, b=가로 칸 수
비례치 : 긴 면 길이÷짧은 면 길이 (단, 가로가 긴 경우에는 "-"를 붙임)

이상에서 구성식의 칸 수로 산출된 밀도와 각 칸의 비례치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그림 1>을 보면, 한국은 정자살을 제외하고 보면 그 분포가 매우 제한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비례치의 범위는 1.39에서 1.93으로 약 1.6을 중심으로 분포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수직적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비례치의 범위가 -8.00에서 5.50으로

매우 넓다. 물론 일본도 일부는 비례치 1.5에서 2.0 사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칸 수가 더 조밀한 부분 즉, 그리드 칸 수 축 상에서 한국보다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비례치가 음수인 경우 즉, 그리드의 형태가 가로로 긴 비례로 된 경우가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한국은 단 하나의 경우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일본 그리드형은 일정 범위 내에서 칸 수가 커질수록 큰 비례치를 갖는 비례적 성향이 나타난다.



<그림 1> 한국과 일본 그리드형의 비례치 분포도

4. 요약 및 결론

창살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간 디자인 요소로서 대표적이라 할만큼 자주 사용되는 아이টে이며,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역시 문화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나라의 전통 창살에 대하여 각각의 특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문화적으로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 규명된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을 다시 확인함과 동시에 새롭게 발견되는 내용들을 부가함으로써 각 나라의 창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체계가 새롭게 정립되거나 대표적 형태가 선정되었으며, 분류체계의 특성에 대한 분자적 특성 및 원자적 특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분류체계에서 나타난 특성으로, 한국은 창살에 형태를 본따서 만들어진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근간으로 하는 창살의 분자적 특성을 지닌다. 중국은 창살 분류체계의 각 범주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창살 형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어서 원자적 특성을 지니며, 일본은 단순한 형태를 구성하는 원자의 기하학적성을 갖는다.

둘째, 기하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각 나라 모두 사각형의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 한국은 사각형, 수직·수평형, 곡선형이, 중국은 사각형, 기타 다각형, 사선형, 곡선형이, 일본은 수직·수평형과 사각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에는 수직·수평형이 없고, 일본에는 문양만을 보았을 때 육각형, 팔각형, 곡선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형태가 고루 나타나지만

중국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그리드형의 경우, 중국은 해당 사례가 없어서 제외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해당 사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구성식이 서로 다르며, 일본이 한국보다 다양하고 더 조밀하게 구성됨을 알게 되었다. 한국의 창살은 사용하고 있는 비례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다양하며, 가로로 긴 형태는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형태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전통 창살의 현대화, 특히 그리드형의 도입이라는 실질적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6
2. 김정기, 한국 목조 건축, 일지사, 1982
3. 김홍식, 한국의 민가 제2권, 한길사, 1992
4. 대한건축학회 편, 동양 건축사 도집, 기문당, 1995
5. _____ 편, 한국 건축사, 기문당, 1995
6. 미셸 뷔르틀리, 김삼대자 역, 중국의 가구와 실내장식, 도암기획, 1996
7. 박인근 역, 일본 건축사, 도서출판 발언, 1994
8.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9. 신영훈, 한옥의 조형, 대원사, 1998
10. 양호영 외, 중국 고대 건축사, 세진사, 1995
11. 임영주, 전통문양 자료집, 미진사, 1996
12. 장기인, 한국 건축 대계, I 창호. 보성각, 1996
13. 주남철, 한국 건축의 창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9집, 1972
14. _____, 한국 건축미, 일지사, 1983
15. _____, 한국 건축 외장, 일지사, 1997
16. 천병욱, 한국 전통 외장 자료. 보진재, 1998
17. 한국전통건축연구회, 한국전통건축-민가건축上, 서울: 황토출판사, 1997
18. _____, 한국전통건축-민가건축下, 서울: 황토출판사, 1997
19. _____, 한국전통건축-향교·서원건축, 서울: 황토출판사, 1997
20. 한동수 역, 그림으로 보는 중국전통민가,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3
21. _____ 역, 궁궐 건축,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6
22. _____ 역, 단묘 건축, 서울: 도서출판 발언, 1996
23. Arsdale, Jay van. SHOJI.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8
24. Bussagli, Mario. Oriental Architecture/2- China, Korea, Japan. Electa/RIZZOLI, 1989
25. Dye, Daniel Sheets. A Grammar of Chinese Lat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26. Engel, Heinrich. The Japanese House. the Charles E. Tuttle Company, Inc. 1964
27. Fujioka, Michio. Japanese Residence and Gardens.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95
28. Goodman, Peter. The Japanese Home Stylebook. Stone Bridge Press, 1992
29. Keswick, Maggie. The Chinese Garden. RIZZOLI, 1980
30. Morse, Edward Sylvester. 日本のすまい. 鹿島出版會, 1979
31. the Dep. of Architecture, Tsinghua Univ.. Historic Chinese Architecture. Tsinghua University Press, 1990
32. Yagi, Koji. A Japanese Touch for Your Home.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6

<접수 : 2000. 5. 10>